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효과로

김숙자*

The Impact of the Motives of College Students for Choosing Majors on Career Decision-Making

-Using Self-efficacy as a Mediation Effect

Sook-Ja Kim*

요약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효과로 분석하여 대학생의 진로지도 관련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G도에 소재한 4년제 일반대학 5개교 대학생 2, 3, 4학년 1,300명을 비무선적으로 편의표집 하여,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다중회귀분석, 3단계 매개효과 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공선택동기는 진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공선택동기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진로지도를 위한 교육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motives of college students for choosing majors on career decision-making with self-efficacy used as a mediation effect, and to utilize the results as data for career counseling for college students. To do so, a research surve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 2017 to November 30, 2017, and based on the non-random convenience sampling techniqu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300 students (2nd, 3rd, and 4th-year students) of five 4-year universities located in G Province. For frequency analysis and hypothesis testing,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3-step mediation effect analysis were used and the results of the analyses were as follow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impact of intrinsic motive on planning style showed that goal selection had a complete mediation effect. Give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hat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society provide students, even during middle and high school years, with opportunities to discover their aptitudes and interests, and an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o pave the way for students to be well prepared for and make decisions about the work they will do.

Key Words : College student, motives for choosing majors,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self-efficacy, self-esteem, mediator effect

1. 서론

현대사회에서는 직업이 가지는 사회적 지위와 역할에 따라 직업의 사회적 이미지가 결정되고 개인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직업은 개인의 삶과 생활방식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인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인의 적성과 흥미에 적합하지 않은 직업선택은 긍정적인 자아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일의 효율성과 효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개인에게 적합한 직업선택은 중요한 과제이며 사회의 발전에

*Corresponding Author :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ksj6015@hanmail.net)

Received March 15, 2018

Revised April 29, 2018

Accepted May 17, 2018

도 중요한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이다. 대학진로를 결정할 때부터 학생보다는 부모와 교사위주의 결정, 장애에 대한 막연한 기대 등은 그릇된 직업선택과 혼란을 야기하여 불안증, 자기갈등과 같은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1].

청년후기 혹은 성인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시기는 발달과정상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의 경험들은 대학생활에 대한 만족감이나 불만감을 느끼게 하고 이것은 졸업 후 직업의 선택이나 사회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2].

대학생들의 가장 중요한 발달과업은 직업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이다[3, 4]. 따라서 대학생들이 자신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가운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적인 조력체제가 필요하다[5].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자의 개인적인 특징으로 Harren은 자아개념과 의사결정유형을 제안했다. 직업적 자아개념은 “개인이 그 자신에게 귀인 시키는 직업적으로 관련된 태도와 특성”을 의미하며 정체감과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진다. 의사결정유형은 개인이 의사결정과제를 지각하고 그에 반응하는 특징적인 방식을 말하며,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나누어진다[6]. 자아존중감 또는 자기효능감이란 어떤 행위를 일정 수준에서 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개인적 신념을 뜻한다. 그러므로 자기효능감은 어떤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관한 자기평가라고 할 수 있다[7]. 따라서 전공을 선택함에 있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고 전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신중한 진로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생들의 대학과 전공선택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취업률이라고 보았을 때 본인의 성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 다양한 직업정보를 습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과제이다.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 취업 및 진로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8].

전공선택동기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은 전공만족도와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다고 하였다[9, 10, 11, 20].

진로 의사결정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진

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의사결정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12, 13, 14],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15, 16].

진로자기효능감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진로선택동기가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17, 18].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판단과 지각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으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로 대학생활에 임하게 될 것이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전공선택동기와 진로 의사결정을 할 때 진로자기효능감이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지를 연구하여 대학생들의 자기이해를 도와 진로지도의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전공선택동기가 진로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2. 전공선택동기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로자기효능감은 어떠한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를 통하여 전공선택동기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과 대학생들의 진로자기효능감이 전공선택동기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어떤 매개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G도에 소재한 4년제 일반대학 5개교에 재학 중인 2, 3, 4학년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17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을 기간으로 하였

다. 표본추출은 비무선편의표집 방법에 따라 1,300부를 배포하여 1,194부를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불성실한 응답지 10부를 제외한 최종 1,184부를 통계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인구 통계적 요인

본 연구에서 배경변인에 따른 연구대상의 일반현황을 알기 위하여 성별, 학년, 전공계열, 학업성적, 대입결정요인, 부모교육수준, 가정경제수준 등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2 전공선택동기

전공선택동기를 측정하기 위하여 정보연(2010)이 제작한 검사 도구를 송윤정(2013)이 재구성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908로 최소한의 수준인 .60 정도를 넘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해당 검사도구의 하위요인은 내재적 동기 8문항, 외재적 동기 5문항, 전체 13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으로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19, 20]. 전공선택동기의 내재적 동기는 본인의 흥미, 관심 등의 욕구에 따른 동기의 정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흥미나 관심에 따른 선택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2.3.3 진로의사결정

김말선(2011)이 Harren(1979)이 개발한 '진로의사결정 검사척도'의 고향자(1992) 번안 본을 활용한 도구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830으로 최소한의 수준인 .60 정도를 넘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하위요인은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10개의 문항이 제시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21, 22]. 진로의사결정은 어떤 문제의 상황이나 장면에 처하였을 때 자신의 행동을 선택하고 문제의 대안을 선택, 결정하는 심리적 작용의 과정과 크기를 의미한다.

2.3.4 진로자기효능감

김말선(2011)의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의 신뢰도는 .892로 최소한의 수준인 .60 정도를 넘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 4개 하위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체 25문항이 제시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Likert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진로자기효능감은 진로선택과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으로 개인이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낼 수 있다는 확신적인 신념을 의미한다.

2.4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 자료처리를 위하여 설문지의 코딩을 거쳐 SPSS20.0과 AMOS20.0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 $p < 0.05$ 로 설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의 인구 통계적 특성에 대해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셋째, 측정변수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측정변수 간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변수간의 영향력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인 표본의 인구 통계적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성별에서는 남자가 61.7%, 여자가 38.3%로 나타났고, 학년에서는 3학년이 44.0%로 가장 많았고, 2학년, 4학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계열에서는 인문사회가 50.6%로 가장 많았으며, 이공, 예체능, 의료생명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업성적은 3.5-4.0미만이 36.7%로 가장 많았으며, 3.0-3.5미만, 4.0이상, 3.0미만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입결정요인에서는 스스로가 46.6%로 가장 많았으며, 부모님, 선생님, 친구/선배, 기타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모교육수준에서는 대졸이하가 45.3%로 가장 많았으며, 고졸이하, 대학원졸 이상, 중졸이하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정경제

수준에서는 중이 71.3%로 가장 많았으며, 하, 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3.2 전공선택동기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3.2.1 전공선택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

전공선택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내재적 동기($t=5.957, p<0.001$), 외재적 동기($t=3.581, p<0.001$)가 합리적 유형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전공선택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

전공선택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내재적 동기($t=2.385, p<0.05$), 외재적 동기($t=5.293, p<0.001$)가 직관적 유형에 모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3 전공선택동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

전공선택동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내재적 동기($t=-3.017, p<0.01$)는 부(-)의 영향, 외재적 동기($t=11.110, p<0.001$)가 의존적 유형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4 전공선택동기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전공선택동기가 진로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효과분석을 실시하였다.

3.3 내재적 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목표선택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내재적 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내재적 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1.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impact of intrinsic motive on planning style

Dependent /Mediation/ Independent	Step	Beta	R Square	F	t
Intrinsic motive/Goal selection/Planning style	1step	.455	.207	308.813***	17.573***
	2step	.223	.050	62.024***	7.876***
	3step(Independent)	.034			1.141
	3step(Mediation)	.417	.188	136.311***	14.147***
Intrinsic motive/Occupation information/Planning style	1step	.332	.110	146.110***	12.088***
	2step	.223	.050	62.024***	7.876***
	3step(Independent)	.105			3.733***
	3step(Mediation)	.355	.162	114.401***	12.590***
Intrinsic motive/Problem solving/Planning style	1step	.135	.018	21.991***	4.689***
	2step	.223	.050	62.024***	7.876***
	3step(Independent)	.200	.080	51.515***	7.084***
	3step(Mediation)	.176			6.246***
Intrinsic motive/Future planning/Planning style	1step	.334	.112	148.745***	12.196***
	2step	.223	.050	62.024***	7.876***
	3step(Independent)	.172	.071	44.982***	5.778***
	3step(Mediation)	.153			5.157***

***p<.001

3.4 내재적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목표선택,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내재적 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나, 직업정보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내재적 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2.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impact of intrinsic motive on intuitive style

Dependent/Mediation/Independent	Step	Beta	R Square	F	t
Intrinsic motive/Goal selection/Intuitive style	1step	.455	.207	308.813***	17.573**
	2step	.136	.018	22.119**	4.703***
	3step (Independent)	.086		16.942**	2.658**
	3step (Mediation)	.110	.028		3.401**
Intrinsic motive/Occupation information/Intuitive style	1step	.332	.110	146.110***	12.088**
	2step	.136	.018	22.119**	4.703***
	3step (Independent)	.124		11.675**	4.070***
	3step (Mediation)	.034	.019		1.108
Intrinsic motive/Problem solving/Intuitive style	1step	.135	.018	21.991**	4.689***
	2step	.136	.018	22.119**	4.703***
	3step (Independent)	.111		30.889**	3.891***
	3step (Mediation)	.179	.050		6.241***
Intrinsic motive/Future planning/Intuitive style	1step	.334	.112	148.745***	12.196**
	2step	.136	.018	22.119**	4.703***
	3step (Independent)	.091		20.814**	3.003**
	3step (Mediation)	.133	.034		4.378***

p<.01, *p<.001

3.5 외재적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외재적 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다.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외재적 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3.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impact of extrinsic motive on planning style

Dependent/Mediation/Independent	Step	Beta	R Square	F	t
Extrinsic motive/Goal selection/Planning style	1step	.207	.043	52.977**	7.279**
	2step	.178	.032	38.846**	6.233**
	3step (Independent)	.093		142.956***	3.480**
	3step (Mediation)	.413	.195		15.467***
Extrinsic motive/Occupation information/Planning style	1step	.205	.042	51.659**	7.187**
	2step	.178	.032	38.846**	6.233**
	3step (Independent)	.103		114.601***	3.779**
	3step (Mediation)	.369	.163		13.577***
Extrinsic motive/Problem solving/Planning style	1step	.060	.004	4.333*	2.082*
	2step	.178	.032	38.846**	6.233**
	3step (Independent)	.167		43.668**	5.927**
	3step (Mediation)	.193	.069		6.854**
Extrinsic motive/Future planning/Planning style	1step	.289	.083	107.544***	10.370***
	2step	.178	.032	38.846**	6.233**
	3step (Independent)	.128		37.400**	4.347**
	3step (Mediation)	.174	.060		5.903**

*p<.05, ***p<.001

3.6 내재적동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내재적 동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내재적 동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4.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impact of intrinsic motive on dependent style

Dependent/Mediation/Independent	Step	Beta	R Square	F	t
Intrinsic motive/Goal selection/dependent style	1step	.455	.207	308.813***	17.573**
	2step	.036	.001	1.550	1.245
	3step (Independent)	.100		10.227**	3.094**
	3step (Mediation)	-.141	.017		-4.345**
Intrinsic motive/Occupation information/dependent style	1step	.332	.110	146.110***	12.088**
	2step	.036	.011	1.550	1.245
	3step (Independent)	.068		5.695**	2.2219*
	3step (Mediation)	-0.96	.010		-3.135**
Intrinsic motive/Problem solving/dependent style	1step	.135	.018	21.991**	4.689***
	2step	.036	.001	1.550	1.245
	3step (Independent)	.035		.829	1.188
	3step (Mediation)	.010	.001		.332
Intrinsic motive/Future planning/dependent style	1step	.334	.112	148.745***	12.196**
	2step	.036	.001	1.550	1.245
	3step (Independent)	.017		2.492	.555
	3step (Mediation)	.057	.004		1.852

*p<.05, **p<.01, ***p<.001

3.7 외재적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목표선택,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외재적 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었으나, 직업정보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외재적 동기가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Table 5. Mediation effect of career self-efficacy on the impact of extrinsic motive on intuitive style

Dependent/Mediation/Independent	Step	Beta	R Square	F	t
Extrinsic motive/Goal selection/Intuitive style	1step	.207	.043	52.977***	7.279**
	2step	.191	.036	44.772***	6.691**
	3step (Independent)	.167		30.367***	5.773**
	3step (Mediation)	.114	.049		3.926**
Extrinsic motive/Occupation information/Intuitive style	1step	.205	.042	51.659***	7.187**
	2step	.191	.036	44.772***	6.691**
	3step (Independent)	.183		23.227***	6.288**
	3step (Mediation)	.038	.038		1.287
Extrinsic motive/Problem solving/Intuitive style	1step	.060	.004	4.333*	2.082*
	2step	.191	.036	44.772***	6.691**
	3step (Independent)	.180		44.315***	6.402**
	3step (Mediation)	.183	.070		6.503**
Extrinsic motive/Future planning/Intuitive style	1step	.289	.083	107.544***	10.370***
	2step	.191	.036	44.772***	6.691**
	3step (Independent)	.157		30.594***	5.296**
	3step (Mediation)	.118	.049		3.982**

*p<.05, ***p<.001

3.8 외재적동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에 대한 분석

분석한 결과, 목표선택,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외재적 동기가 의존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전공선택동기가 진로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진로자기효능감을 매개효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공선택동기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는 진로의사결정의 하위요인인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 의존적 유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의존적 유형에는 내재적 동기가 부정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여 전공을 선택한 학생들이 전공만족도와 학교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를 한다는 [9, 10, 11, 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처럼 전공을 선택할 때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 등 본인의 의사 결정에 의해 전공을 선택한 경우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성취도가 높아 만족스러운 대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미래의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결정을 하게 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둘째, 내재적 동기가 합리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목표선택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정보,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관적 유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분석결과 목표선택, 문제해결, 미래계획은 부분매개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직업정보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존적 유형에는 진로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의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이 진로에 대한 준비행동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12, 13, 14, 15, 1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외재적 동기가 진로의사결정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진로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합리적 유형과 직관적 유형에 대해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

고 있으나 직관적 유형에 대한 직업정보와 의존적 유형에는 매개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진로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할 때의 선택을 돕고 그 행동을 마칠 때 까지 노력 정도를 결정하는 판단과 사고, 정서적 반응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24, 2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함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며 진로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개방적인 자세로 생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교육기관과 사회가 중, 고등학교 시기부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앞으로 자신이 하게 될 일에 대해 준비, 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교육적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대학에서는 학생들이 다양한 직업세계에 대한 탐색과 그에 대한 준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진로관련 정보제공과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에 실천적 개입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1] Lee, M. K., Han, E. J., Hwang, B. M. A Study on the Vocational Motives of University Students - Centering on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ourism Research*, 52, 113-130 (2016).
- [2] Kim, S. J. Impa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Career Decision Making and Career Self-efficiency on University Life Satisfaction in University Students. Ph.D. Thesis, Catholic Kwandong University (2015).
- [3] Kim, M. S. The Effects of Career Group Counseling Based Upon Multiple Intelligence Theory on Career Decision-Making, Career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for College Students. Ph.D Thesis, Donga University (2011).
- [4] Kang, G. J. A Qualitative Study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experience of local university in Daegu and Kyeongbuk area.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Yeungnam University (2012).
- [5] Song, S. W. Decision-Making Types and Career Decision-Making Levels Depending on Self-esteem and Career Searching Self-Efficacy. *Journal of Student Guidance*, (2001), NO. 14, 1-23.
- [6] Kim, B. H. et al. Career Counseling Theory,

Seoul: Hakjisa (2013).

[7] Kwon, D. H. Theory and Practice of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Hakjisa (2015).

[8] Goeldner. C. R & Ritchie. J. R(2009). Tourism: Principles. Practices. Philosophies. 11th edition,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9] Lee, S. Y. Research on Major Selection Factor, Satisfaction of Major and Employment Selec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Physical Education Department.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 (2009).

[10] Kim, S. Y. A Research on Selective Motives for Specialization and Career Decision of Graduated Majored Social Welfare in University -case of Three Universities in Chonbuk Region.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on, Wonkwang University (2008).

[11] Kim, H. G. A Study on the Motives and Satisfaction of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ulinary Arts in Selecting Their Major.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14).

[12] Kang, C. H.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five personality factors on career path decision types.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Mokwon University (2012).

[13] Ahn, H. J. The Influence of Department Satisfaction, Career Identity, and Career Decision Type of University Students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13).

[14] Lee, E. K.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Self-concept and Career Decision-Making.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of Regional Development, Hannam University (2001).

[15] Kim, J. E. The Career Self-efficacy and the Career Decision-making of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2007).

[16] Ko, H. J. A Study on the Effect of Career Counseling on Korean College Students' Decision Making Styles and on Career Decision Making Status. Ph.D Thesis, Graduate School, Sookmyung Women's University (1992).

[17] Kim, B. K. The Casual Relationship Among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elf-leadership, Problem Solving Ability, and Career Motivation of Undergraduates,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2).

[18] Cheon, T. J. The Effects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of University Students Majoring in Medical Tourism Related Department on Degree of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 - Making Self -Efficacy.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Konyang University (2015).

[19] Chung, B. Y.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of University Students on Vocation Choice Factors.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Kyonggi University (2009).

[20] Song, Y. J. The Effect of Major Selection Motivation Major Satisfaction and Professor-Student Interaction of University Students on their School Life Adjustment. Ph. D Thesis, Graduate School, Donga University (2013).

[21] Herren, V. A. (1979). A Model of Career Cecision-Making for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2), 119-133.

[22] Buck, J. N. (1981). Influence of identity, anxiety and decision-making style on the career-making proces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uthern Illinois University.

[23] Bandura, A. (1989). Human agency in cognitive theory. American Psychologists, 44. 1175-1184.

[24] Lee, J. H. A Study on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Maturity among Adolescents.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Yeongnam University (2011).

[25] Han, N. R. A Research on Self-efficacy of Career Decision-making: A Case of Female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Office Administration. Master's Degree Thesis, Graduate School, Ewha Womans Univers- (2010).

저자약력

김 숙 자(Sook-Ja Kim)

[정회원]



- 2012년 2월: 가톨릭관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16년 2월: 가톨릭관동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박사)
- 2014년 3월: 해인심리상담연구소 소장
- 2016년 3월~현재: 가톨릭관동대학교 시간강사

<관심분야>

정보경영, 정보통신